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마을

국가생태관광지역 재지정

웅진군(군수 문경복)은 백령도 하늬해변(잡박이물범 집단서식지)과 진촌마을이 환경부가 주관한 '국가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생태관광지역 제도는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로, 3년마다 운영성과, 주민참여도, 생태자원 관리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백령도는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의 최대 서식지로 독특한 지질·경관자원, 다양한 철새 도래지 등 국제적으로 가치 있는 생태·자연자원을 보유하고, 백령도점박이물범생태관광협의체가 주도한 생태교육 프로그램과 탐방 프로그램 운영,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가 우수하게 인정됐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백령 생태관광계획센터 조성사업은 이번 재지정 성과와 맞물려 백령도의 생태관광 기반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백령 생태관광계획센터는 2026년 준공 예정으로 탐방객을 위한 생태 해설 및 교육 공간, 전시·체험 시설, 지역 특산물 홍보·판매 공간 등을 갖추어 향후 지역주민 소득 창출과 생태 보전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웅진군은 이번 재지정과 생태관광계획센터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생태관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형 관광콘텐츠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관광 보전의 균형 달성 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화군, '어르신 무상택시

사업' 본격 시행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오는 10월부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어르신 무상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70세 이상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버스와 택시 이용 요금을 합산해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관내 버스 요금에 한해 연간 18만 원을 지원했으나, 택시까지 포함해 지원 범위와 금액을 모두 확대했다.

특히, 이번 무상택시 사업은 서울 중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인천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사례로 교통복지 분야에서의 선제 대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에게 더 넓은 사회·경제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버스는 강화군 내에서 승·하차하는 경우에 한하며, 택시는 강화군 관내 택시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금은 분기별 최대 6만 원까지 개인 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식(페이백)으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은 '어서타시겨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개인 충전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분기별 정산을 통해 환급받는다.

'어서타시겨 교통카드'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야 한다.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은 별도의 절차 없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408억 원 투자 유치 협약, 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

인천 북부권, 첨단 조명산업 거점·친환경 조명기술 개발·지역 인력 육성

5년간 5,160억 원 경제효과와 9,200명 고용 효과 예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11일 조명기술 분야 국내 최고 전문기관인 키엘연구원과 '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키엘연구원은 인천 북부권역에 2028년까지 총 408억 원을 투자해 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를 신축·운영할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 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 개원을 위한 투자 ▲ 인간중심 조명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 스마트 조명 탄소저감 실적 외부사업 추진 ▲ 지역 인력 채용 및 과학산업 선도 국가대표급 인적자원 육성 ▲ 인천 기업 시험평가 수수료 감면 및 산업육성·기

술고도화 지원 등이다.

순환경제형 조명산업 지원센터는 폐 LED조명 제품의 재활용과 자원순환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탄소저감형 스마트 조명 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인간 중심 조명(HCL: Human-Centric Lighting) 기술 개발,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2028년 센터 설립 시점 기준 약 1,276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과 800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설립 후 5년간 누적 기준으로는 약 5,160억 원의 경제효과와 9,200명

의 고용 유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9월 11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The 21st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Incheon)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회식은 대회 4일 차 공식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24개국 아시아건축사협회 대표단을 비롯해 쟁쟁한 참가 학생, 국내 건축사, 건축 관련 전문가, 학계 인사, 시민 등 7천여 명이 참석해 인천이 아시아 건축교류의 중심 무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었다.

대회는 'A Better Tomorrow -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축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천시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개회식은 전국 시·도 건축사회장단의 임장으로 시작되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환영사를 겸해 '인천'을 주제로 한 'welcome speech'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8일 개막 이후 ▲국제학술회의 ▲아시아건축사협회(AARCASIA) 건축상 시상식 ▲국내·외 학생 쟁쟁한 ▲도시·건축문화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술 교류와 문화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심하린 기자

별밤 소통 “제물포구 성공, 주민 화합이 첫걸음”



김정현 인천 중구청장이 지난 10일 저녁 인천아트플랫폼 중앙광장에서 열린 '별밤 지기 중구청장과 함께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 소통 마당'에서 "제물포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주민 화합'"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중구의 '별밤 소통 마당'은 평소 구정 행사 참여가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한 야간 소통 행사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3회째 이어지고 있다.

딱딱한 틀의 '주민과의 대화' 형식에서 벗어나, '보이는 라디오 형식'을 채택해 구정 현안부터 생활 속 작은 민원,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2026년 7월 '제물포구 출범'을 1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500여 명의 중·동구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공감, 화합의 무대가 펼쳐졌다.

이를 위해 가수 백영규의 오픈닝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 사연을 나누는 '별밤 스토리', 특별 손님과 함께하는 '별밤 초대석' 등이 진행됐다.

먼저 '별밤 스토리'에서는 제물포구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원도심 주민들이 주인공이 돼 지역에 서린 옛 추억과, 제물포구 출범에 대한 소회와 기대감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심하린 기자

또한 '별밤 초대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출연해 제물포구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함께 '제물포구의 새로운 도약과 세계도시 인천의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현정화 대한타구협회 수석부회장 특별 손님으로 나와 1991년 남북 단일팀의 금메달 일화를 들려주며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탁구 이벤트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마지막 순서로 중구 원도심 7개 동과 동구 11개 동 주민대표가 무대에 올라 '제물포구'의 대형 지도 퍼즐을 완성하는 화합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내년 출범을 앞둔 제물포구의 새로운 출발을 다 함께 축하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라디오를 콘셉트로 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과 음악으로 공감할 수 있어 특별했다"라며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주민 모두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됐다"라고 입을 모았다.

김정현 중구청장은 "원도심 주민들과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추억과 웃음, 이야기가 한데 모여 제물포구의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중·동구가 '하나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소통을 계속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숲속학교 아카데미'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0일 인천남부파학교교육관에서 관내 초등학교 교원 43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숲속학교 아카데미Ⅱ'를 운영했다.

학교 숲은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 의식을 길러주는 교육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연수는 2021년부터 조성된 65교 학교 숲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교사의 생태전환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4시간 직무연수 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 연계 학교숲 체험 ▲자연·생태놀이 활동 ▲학교숲 활용 수업 활성화 방안 협의 등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여 교사들은 "저학년 시기의 자연 경험이 정서 발달과 생태적 태도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며 학교 숲의 교육적 가치에 공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숲은 교실을 넘어 자연과 만나는 살아있는 배움터"라며 "이번 연수로 교원 간 협력적 생태교육 네트워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계양아라온 '가을꽃 국화축제' 9월 20일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인천9경 계양아라온에서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꽃 국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가을꽃 국화축제는 천만 송이 국화와 다양한 야생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선사한다.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가족·연인 조형물, 오로라볼, 열기구 조형물 등 다채로운 전시물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와 미로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남

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운영된다.

또한, 야간에는 계양아라온 빛의 거리에서 경관조명이 점등돼 낮과 밤, 색다른 매력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 축제는 국화와 야생화 천만 송이에 더해 지난 8월 말부터 만개한 2천만 송이 백일홍이 함께 어우러져 총 3천만 송이 꽃물결을 이룬다.

지난 6월 파종한 백일홍은 여름 폭염과 폭우를 이겨내고 화려한 꽃을 피웠으며, 계양아라온의 잔잔한 물결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한다.

심하린 기자

달짝~!
뒷좌석까지 안전을 채우세요

뒷좌석 안전벨트도 CHECK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 무려 3.7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